

# “전문 모델? 보성군청 직원이에요”

### 보성군청 박승희 주무관 직접 출연 ‘차 먹방’편 참여 韓·日·中·英 4개국 의상 입고 각국 차 문화 소개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홍보에 보성군 전 직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전에 뛰어 들었다. 지난달 보성군이 공개한 세계차엑스포 홍보 영상 중 ‘차 먹방’ 편은 전문 모델이 아닌 보성군 공무원이 직접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 먹방’편에 참여한 박승희 주무관은 세계차엑스포라는 콘셉트에 맞게 한국, 일

본, 중국, 영국 등 4개국 의상을 입고 각국의 차 문화를 발달하게 소개하는 연기를 펼쳤다. 보성군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보성세계차엑스포 홍보를 위해 보성군은 지난달 27일 3편의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다. 3편의 홍보 영상은 전 세계의 차를 다 마신다는 ‘차 먹방’편, 송해교 주연의 더글로리

를 패러디한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편, 엑스포로 축제를 한 번에 즐기자는 ‘보성을 만나야 하는 이유’ 편이다. 영상 댓글도 “모델이 너무 예뵤요”, “보성 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성 차 먹방하고 싶어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만 아니라 지난 4일에는 보성군 공무원 SNS 홍보단 70여 명이 함께 보성세계차엑스포 SNS 집중 홍보에 나섰다. 보성군 공무원 홍보단은 보성차밭, 제암산자연휴양림, 울포해변 등 보성 대표 관광지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SNS에 공유하며 세계차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한 홍보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홍보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에 직원들이 참여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친근하면서도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월31일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순천에 남긴 말·말·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와 비공식 발언이 회자하고 있다. 4일 순천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막식 행사 축하 및 박람회장을 둘러본 뒤 나흘째를 맞은 4일까지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하사에서 “순천은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서,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순천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며 축하를 마무리했다.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는 말은 애초 축하 원고에 없었으나 축하사에서 던진 멘트로, 대통령의 순천정원박람회에 대한 진심이 짙고 굳게 압축된 소감으로 여겨진다. 개막식 참석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키운 행사, 대통령이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순천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개막식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과 노관규 시장의 환담과 가든스테이 만찬 자리에서 오간 흥미로운 대화 내용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노 시장은 환담 자리에서 순천의 생태 보존 발자취와 정원박람회 개요를 보고하고, “공식 브리핑은 끝났지만, 대통령님을 언제 또 뵙겠냐, 순천에 대통령님이 풀어주셔야 할 현안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의 승낙을 받은 노 시장은 가장 큰 현

안인 경전선 노선 우회를 비롯해 동천 명품호천 사업,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예산 등을 건의했다. 건의를 들은 대통령은 “경전선 도심 통과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회를 지시하겠다고 말했으며 또 명품호천 사업도 “지방하천을 수도권과 영남만 주고 호남은 안 주면 균형이 맞지 않다”면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개막식에 정말 감동받았다. 특히 주제공연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이 정도면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는 확신이

“순천정원박람회, 도시를 키운 행사...대통령이 안 갈 수 없어”  
순천 방문한 윤석열, 노관규 순천시장 건의 현안 대폭 수용  
김건희 여사 “순천 또 오고 싶은 곳, 잘 지켜 후손에 물려주시길”

다”라며 축하를 마무리했다.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는 말은 애초 축하 원고에 없었으나 축하사에서 던진 멘트로, 대통령의 순천정원박람회에 대한 진심이 짙고 굳게 압축된 소감으로 여겨진다. 개막식 참석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키운 행사, 대통령이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순천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개막식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과 노관규 시장의 환담과 가든스테이 만찬 자리에서 오간 흥미로운 대화 내용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노 시장은 환담 자리에서 순천의 생태 보존 발자취와 정원박람회 개요를 보고하고, “공식 브리핑은 끝났지만, 대통령님을 언제 또 뵙겠냐, 순천에 대통령님이 풀어주셔야 할 현안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의 승낙을 받은 노 시장은 가장 큰 현

다”고 순천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노 시장은 순천 웹툰 작가가 그린 대통령 부부의 캐리커처를 전달하며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에 비어 있는 공간을 기업들로 채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기존 300억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이 메시지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돼 이를 만에 노관규 시장에게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추가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달 31일 이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김 여사는 해설사의 안내로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가든쇼 작품 작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순천은 또 오고 싶은 곳이다. 순천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겠다”며 “아름다운 순천을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군, 야놀자와 콜라보 ‘더 스테이 프로젝트’ 진행 선착순 최대 3만원 할인 등

고흥군이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협업해 ‘2023 더 스테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2023 더 스테이 프로젝트’는 고흥군과 야놀자가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획전을 열고 해당기간 내 숙박 할인과 관광지 무료입장을 지원한다. 야놀자에서 열리는 기획전에 접속해 투숙일 기준 6월 30일까지 고흥 지역 숙소를 예약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최대 3만원까지 숙박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고흥 관광명소 5개소(고흥우주발사전망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분청문화박물관, 감재민속전시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에 대해서는 4인까지 무료입장이 지원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4월 2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고흥군의 우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한편,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관광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수항, 개항 100주년 행사 ‘성료’ 이순신광장 일일 3만여 명 방문...여수항 미래 100년 청사진 시민과 공유

여수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열린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가 여수항의 미래비전을 전 시민과 공유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4일 막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복합관광거점 중심 여수항’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에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첫째 날 1일에 기념 조형물 제작식 및 타임캡슐 매설식을 포함한 기념식 행사를 시작으로 4일까지 기념주간에는 그림·글짓기 대회, 여수항 사진전, 메타버스 체험관, 요트 승선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00년 뒤의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여수항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임캡슐 매설식에서는 여수항의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행사에 힘입어 ▲크루즈 관광 활성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신항·신북항 진입도로 확충 ▲국도항-여수구항 연결도



로 개설 ▲여수항 항만친수공원 조성 등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항이 해양복합관광거점항으로 발전하고 인근 지역과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항이 해양복합관광거점 중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수항 미래 100년 비전을 전 시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다양한 여수항의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적극 건의해 여수항의 미래 100년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